■ 민족문화연구 제97호(2022.11.30.),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pp.305-339.
http://doi.org/10.17948/kcs.2022..97.305

여성과 책: 여성 표제어 책들을 통해 본 식민지 책시장의 젠더 역학*

유석환(柳石桓)**

목 차

1. 문제의 제기
2. 여성 표제어 책의 동향과 1920년대의 특이성
3. 여성 표제어 책의 시기별 양상과 그 특징
4. 식민지 여성과 문학의 관계
5. 맺음말: 식민지의 여성과 책시장의 젠더 역학, 그리고 문학

국문초록

이 글은 여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식민지의 책시장을 어떻게 구조화시켰는지를 검토한 글이다. 이를 위해 이 글에서는 책시장에서 유통된 책들의 제목에서 여성 지시어가 첨부된 책을 표본집단으로 설정했다. 이 표본집단을 대상으로 식민지의 여성과 책시장, 문학의 관계를 조망했다. 책시장에서 여성 표제어 책의 유통은 1920년대에 정점에 달했다. 여성 표제어에서는 집안의 여성보다는 집 밖의 여성을, 기혼 여성보다는 미혼 여성을 지시하는 말이 우세를 점했다. 이는 전통적 여성과 근대적 여성을 가르는 지표로 작용했다. 아울러 문학은 여성에게 단순히 취향의 대상만은 아니었다. 전근대의 여성이 소설을 필사함으로써 문자문화의 영역에 자신의 입지를 마련했듯이 식민지의 여성은 문학을 통해 인간다움과 근대인의 삶을 내면화했다. 그러나 여성과 문학의 친밀한 관계에는 여성의 사회활동을 상당히 제약한 식민지의 구조적 압력도 작용했다. 이러한 점들을 검토한 이 글은 근대 지식문화의 젠더 양상을 새롭게 조망하는

* 이 연구는 2021년도 아모레퍼시픽재단의 학술연구비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
**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연구원.

계기를 마련해줄 것이다.

주제어: 식민지 책시장, 여성 표제어 책, 젠더 역학, 식민지 지식문화, 근대적 여성상.

1. 문제의 제기

이인직의 『혈의 누』 한 대목을 읽는 것으로 이 글의 논의를 시작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듯싶다.

> "옥년이는 아무리, 조션 계집아ᄒᆞ이ᄂᆞ, 학문도 잇고, 긔명한 ᄉᆡᆼ각도 잇고, 동셔양으로 단기면셔, 문견이 놉흔지라, 셔슴지 아니ᄒᆞ고, 혼인언론, ᄃᆡ답을 ᄒᆞᄂᆞᆫᄃᆡ (…) 옥연이가, 구씨의 권ᄒᆞᄂᆞᆫ 말을 듯고, ᄯᅩ한 죠션부인 교육할 마음이 간졀ᄒᆞ야 구씨와 혼인언약을, ᄆᆡ지니 (…) 옥연이는 공부를 심써 ᄒᆞ야, 귀국ᄒᆞᆫ 뒤에, 우리나라 부인의 지식을 널려셔, 남ᄌᆞ의게 압졔를 밧지 말고, 남ᄌᆞ와 동등 권리를 찻계 ᄒᆞ며, ᄯᅩ 부인도 나라에 유익한 ᄇᆡᆨᄉᆡᆼ이 되고, ᄉᆞ회상에, 명예 잇ᄂᆞᆫ 사ᄅᆞᆷ이 되도록, 교육할 마ᄋᆞᆷ이라"[1]

한국 현대소설사의 문을 열어젖힌 『혈의 누』의 그 혁신적 면모는 당대의 현실을 서사화했다는 것인데, 이인직은 여성의 성장 과정을 형상화함으로써 근대적 서사의 얼개를 짜냈다. 『홍계월전』과 『박씨전』, 『방한림전』, 『금방울전』 등의 고소설이 증언하듯이 여성을 주인공 삼아 여성의 성장을 재현한 서사는 새로운 것이 아니었다. 특히 『혈의 누』는 전쟁이나 천재지변과 같은 돌발상황에 따른 보호자와의 이별, 주인공의 비범한 능력, 조력자와의 우연한 만남 등으로 양식화된 전통 여성영웅소설의 서사 구조를 그대로 답습한 20세기판 여성영웅소설이라 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러나 『혈의 누』의 김옥련은 고소설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새로운 여성이었다. 무엇보다 그녀는 전근대의 시공간 질서에서 벗어나 있었기 때문이다. 전근대사회에서 여성과 남성의 위치는 매우 뚜렷했다. "내외(內外)를 변별하여 남자는 바깥채에 거주하고, 여자는 안채에 거주한다. 남자는 함부로 그 안으로

1) 菊初, 「血의淚 (四十五)」, 『萬歲報』, 1906.10.4. 1면.

들어갈 수 없으며, 여자는 함부로 그곳에 나올 수 없다"와 같은 고전적 규율을 내면화한 결과 집안은 여성의 영역, 집 밖은 남성의 영역이었다.[2] 이렇게 젠더화된 시공간의 질서와 규율을 벗어나면, 『홍계월전』 등이 보여준 바와 같이 여성성은 남성성에 의해 은폐되거나 여성은 아예 인간성을 초월한 초자연적인 존재로 둔갑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한마디로 집 밖은 여성성을 일상적으로 유지하기 어려운, 여성성의 일탈을 강제하는 장소였다. 하지만 김옥련은 고소설의 전형적인 재자가인과 다를 바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집 밖 어디에서도 그녀의 여성성은 조금도 위축되지 않았다. 그렇기는커녕 남성의 독점물이었던 집 밖의 영역을 남성과 분할하기에 이르렀다. 요컨대, 근대적 여성상을 형상화했던 『혈의 누』는 한국 최초의 여성인권선언서로 알려진 「女權通文」(1898)의 소설 버전이었던 셈이다.

주의할 사실은 『혈의 누』가 제시한 근대적 여성상이 당시로서는 지나치게 이상적이었다는 점이다. 20세기 전환기에 한반도를 여행했던 외국인들의 증언대로 여전히 중·상류층의 "시집간 여자는 바로 자신의 집에 감금된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생을 마감했다.[3] 물론 여성인구의 과반을 차지했던 하류층 여성의 경우에는 집 밖에서의 활동이 더 자유로웠다. 하지만 "가족들의 옷을 만들고, 모든 요리를 만들고, 무거운 공이와 절구로 쌀을 찧으며, 무거운 보따리를 머리에 이고 시장에 가며, 물을 긷고, 먼 거리에 있는 밭에 나가 일을 하며, 일찍 일어나고 늦게 쉬며, 실을 뽑아 베를 짜며, 한결같이 아이들을 많이 낳아 세 살이 될 때까지 젖을 떼지 않"는 현실을 하루하루 살아내는 것만 해도 힘에 겨웠다.[4]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교육의 이념이나 남녀평등의 인권 개념 등이 이런저런 방식으로 보급됨에 따라 변화된 여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여성서사의 형식과 내용을 고전적 여성여웅소설이 아니라 『혈의 누』와 같은 방식으로 양식화했다. 나아가 현실에서 『혈의 누』의 김옥련과 같은 여성이 계속해서 배출되고 활동할 수 있도록 각종의 사회제도까지 바꾸어 나가기 시작했다. 『혈의 누』가

2) 陳澔, 정병섭 역, 『譯註 禮記集說大全』, 학고방, 2013, 376면.
3) Ernst von Hesse-Wartegg, 정현규 역, 『조선, 1894년 여름』, 책과함께, 2012, 205면.
4) Isabella Bird Bishop, 신복룡 역주, 『조선과 그 이웃 나라들』, 집문당, 2000, 331면.

등장하기 20년 전에 설립된 이화학당, 『혈의 누』보다 석 달 앞서 등장했던 진명여학교, 1908년에 설립된 관립 한성고등여학교 등의 여성 교육기관은 김옥련이 가상의 세계에서 현실의 세계로 나오는 변혁의 마중물이었다.

이 글은 바로 이런 지점에 주목했다. 여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가 고전적 여성영웅소설 양식의 탈구조화·재구조화를 주도해 나갔듯이 그 변화는 또한 근대 지식문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을까? 사실 여성 인식의 변화로 인해 지식문화만큼 혁명적 변화를 보였던 사회 분야도 없을 것이다. 과거 몇백 년 동안 공식적인 지식문화가 여성을 근본적으로 배제했다는 점에서도 그렇지만, 어떠한 변화든지 변화에는 그에 적합한 지식이 수반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 까닭에 지난 수십 년 동안 수많은 연구자들이 근대 여성의 지식문화를 탐색했다. 당연히 이 글도 기존 연구사의 연장선상에 놓여 있다. 다만 이 글은 조금 다른 각도에서 근대 여성과 지식문화의 관계에 접근하고자 한다. 그동안의 연구들은 주로 신여성 담론이나 여성 교육의 실태, 여성잡지의 발행 양상, 아니면, 김명순이나 나혜석 같은 특별한 여성의 생애에 집중하며 여성의 지식문화를 파악했다.[5] 대체로 기존 연구들은 여성의 주체성에 초점을 맞춘 결과 여성이 직접 산출한 결과물에만 깊은 관심을 보였다. 이 글의 관심사인 여성과 책이라는 주제도 해당 분야 연구자들이 모를 리 없고 관심을 갖지 않을 리 없는데도 불구하고,[6] 충분히 연구되지 않은 까닭도 그와 무관하지 않다. 식민지시기만 하더라도 여성이 집필한 책의 양은 매우 적었기 때문이다. 파편적인 형태로 신문·잡지에 산재한 독서 취향 설문조사 결과물은 주 자료로 삼기에 가뜩이나 자료의 양과 질 모두 부족한 형편인데, 거기에 여성의 주체성까지 고려하면 자료의 활용도는 훨씬 더 낮아질 수밖에 없다.

---

5) 관련 연구는 매우 방대하다. 이 글에서 주로 참고한 연구들은 다음과 같다. 김경일, 『여성의 근대, 근대의 여성』, 푸른역사, 2004; 박선미, 『근대 여성, 제국을 거쳐 조선으로 회유하다』, 창비, 2007; 김수진, 『신여성, 근대의 과잉』, 소명출판, 2009; 홍인숙, 『근대계몽기 여성 담론』, 혜안, 2009; 서지영, 『경성의 모던걸』, 여성문화이론연구소, 2013; 김경일, 『신여성, 개념과 역사』, 푸른역사, 2016; 김경연, 『근대 여성문학의 탄생과 미디어의 교통』, 소명출판, 2017; 조혜란, 「조선시대 한글과 여성 교양」, 『달밤의 약속, 완월회맹연 읽기』, 책과함께, 2019; 한국고전여성문학회 편, 『신작로에 선 조선 여성』, 소명출판, 2020 등.

6) 서구의 사례로는 Christiane Immann, 엄미정 역, 『판도라의 도서관: 여성과 책의 문화사』, 예경, 2011; Stefan Bollmann, 유영미 역, 『여자와 책』, (주)알에이치코리아, 2015 등 참조.

이 글에서는 여성의 주체성 여부를 유보한 채 책을 소재로 여성과 지식문화의 관계를 파악하려고 한다. 여성의 주체성 여부가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다. 지식문화의 분야에서 여성의 주체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성관의 전환에 따른 지식문화의 변화상 자체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20세기 전환기를 전후하여 국민교육의 이념 아래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는 여성인구 전체에 지식문화의 입구가 공식적으로 열린 일은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다. 책시장은 그 여성인구의 수요에 어떻게 대응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어떤 수요를 창출하려고 했던 것일까?

지난 몇 년간 필자는 신문의 책 광고와 출판사・서점의 판매도서목록집을 주 자료로 삼고, 조선총독부의 검열보고서나 출판문화 관련 조사기록 및 회고 등을 보조 자료로 삼아 식민지시기 책시장의 전반적인 동향을 검토해 왔다.[7] 이 글의 문제의식은 그 연구의 과정에서 여성에 대한 인식이 책시장의 변동을 일으킨 중요한 동인이었던 것을 확인한 데서 비롯되었다. 이 글이 근대 지식문화의 젠더 양상을 새롭게 조망하는 계기를 마련해줄 것이라고 믿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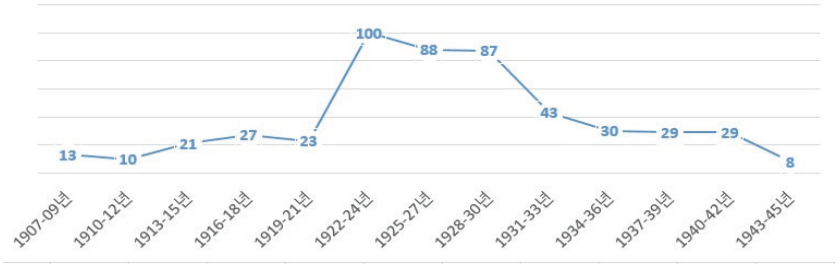
2. 여성 표제어 책의 동향과 1920년대의 특이성

이 글에서는 책시장의 젠더 역학을 파악하기 위해 표본집단을 만들었다. 표본집단은 책시장에서 유통된 책들에서 책 제목에 특정 단어가 첨부된 책들을 선별한 것이다. 프랑코 모레티가 적절히 환기한 바와 같이 반드시 의미가

7) 그간의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식민지시기 책시장 분석을 위한 기초연구 (1): 『매일신보』의 책 광고」, 『민족문학사연구』 64, 민족문학사학회・민족문학사연구소, 2017, 333-370면; 「식민지시기 책시장 분석을 위한 기초연구 (2): 『동아일보』의 책 광고」, 『상허학보』 54, 상허학회, 2018, 239-287면; 「식민지시기 책시장 분석을 위한 기초연구 (3): 『조선일보』의 책 광고」, 『상허학보』 62, 상허학회, 2021, 291-336면; 「출판사・서점의 판매도서목록에 대한 몇 가지 단상」, 『근대서지』 11, 근대서지학회, 2015, 551-570면; 「문학 범주 형성의 제도사적 이해를 위한 시론: 출판사・서점의 판매도서목록을 중심으로」, 『현대문학의 연구』 57, 한국문학연구학회, 2015, 7-54면; 「식민지시기 책시장의 동향과 지식・문학의 관계 (1): 1910년대 중반 무렵의 변동 국면」, 『대동문화연구』 116,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2021, 213-257면; 「식민지시기 책시장의 동향과 지식・문학의 관계 (2): 1920년대 중반 무렵의 변동 국면」, 『상허학보』 65, 상허학회, 2022, 241-280면; 「식민지시기 책시장의 동향과 지식・문학의 관계 (3): 1930년대 후반기의 문학중심주의」, 『민족문학사연구』 79, 민족문학사연구소, 2022, 87-126면.

부여된다는 점에서 그 자체로 중요한 책 제목은 책시장에서 한층 더 특별해진다. "그것이 '시장이라는 상황에서 코드화된 메시지'이기 때문이다. 시장에서의 코드 말이다. 반은 기호이고 반은 광고인 책 제목"은 책시장의 동향을 시사하는 지표인 셈이다.[8] 이 글에서 고려한 특정 단어는 여성을 지시하는 단어다. 여성 지시어는 출판사·서점의 판매도서목록집, 책 광고 등을 통해 확인한 책 제목에서 추출했다. 구체적으로는 '여자, 여성, 부인, 부녀, 여학생, 소녀, 걸, 어머니, 딸, 아내, 처, 첩, 가정, 임신, 산파, 육아, 요리, 재봉, 화장, 미용, 미인, 결혼, 연애, 사랑, 성' 등이다. 물론 이 단어들 중 '결혼, 연애, 사랑, 성'과 같은 단어는 남성까지 포괄하는 중성적인 단어다. 하지만 여성을 간접적으로 지시하는 그 단어들의 양성성을 고려하여 여성 지시어로 채택했다. 요컨대, 표본집단은 책 제목에 여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지시하거나 환기하는 일반명사가 들어간 책들이다. 이 책들의 선별 과정에서 해당 지시어의 한자와 한글 표기 둘 다 고려했다. 이 글에서는 그 책들을 '여성 표제어 책'이라고 표현했다.

『대한매일신보』와 『매일신보』, 『동아일보』, 『조선일보』 이상 4종에 실린 책 광고를 정리하면, 1905-1945년 동안 최소 7,281종의 책이 책시장에서 유통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중 표본집단, 곧 여성 표제어 책의 종수는 모두 508종이었다. 이는 전체 책 종수의 약 7%를 차지하는 규모였다. 표본집단의 규모가 작아 보이지만, 그것을 통해 시기별 경향성을 확인하는 데는 무리가 없다. 먼저 다음의 그래프를 보자.



[그래프 1] 여성 표제어 책들의 시기별 규모

8) Franco Moretti, 김용규 역, 『멀리서 읽기』, 현암사, 2021, 268면.

[그래프 1]은 표본집단의 시기별 규모를 좀더 분명히 확인하기 위해 기간을 3년 단위로 설정한 것이다. 표본집단의 책은 신문 책 광고란에 1907년부터 등장했다. 그러다 1910년대 중반에 들어서면서 표본집단의 규모는 그 이전보다 2배 정도 커졌고, 1920년대 중반에 들어서면 1910년대 중반보다 4배 이상의 규모로 폭증했다. 이렇게 급격히 팽창한 규모는 1930년대에 접어들면서 급감하여 1930년대 중반 무렵부터는 절정기 규모의 1/3 수준이자 1910년대 중반 무렵의 1.3배 규모를 유지하다가 광복 직전에는 그래프의 초기 수준 이하로 감소했다.

보다시피 1920년대 중・후반기가 상당히 특이한 시기였다. 책 제목에 여성 지시어가 갑자기 많이 등장했다는 것은 여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바뀔 만한 일이 있었다는 것을 시사한다. 근대 여성사에 대해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먼저 여성 교육을 떠올릴 것이다. 왜냐하면, 1920년대 중반은 근대 여성 교육사에서 획기적인 시기였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당대 신여성의 산실이자 실질적인 여성 독서인구를 양성했던 여성 중등교육 제도가 그때부터 개선되기 시작했다. 이를테면, "1925년까지 2개밖에 없었던" 공립여자고등보통학교는 "1926년에 4개 교, 1927년에는 6개 교로 늘"어난 결과 "1924년까지 공/사립을 포함하여 7개였던 여자고등보통학교는 불과 3년 사이에 15개 학교로 증가하였다."[9] 사실상 사범학교가 유일한 고등교육기관이었던 여학생에게 고등교육 진학의 통로였던 해외 유학의 경우에도 1920년대 중반은 주목할 만한 시기였다. 1910년에 34명에 불과했던 여성 유학생 수는 1920년에 145명, 1926년에 234명으로 증가했다가 200명대 수준에서 정체된 후 1930년대에 들어서면서 다시 증가하기 시작했다.[10] 여성 유학생 수가 34명에서 145명으로 증가하는 데 10년이 걸렸지만, 그다음 100명이 증가하기까지는 그 절반의 시간이면 충분했다. 이러한 중・고등교육의 확대는 초등교육의 팽창이 뒷받침된 결과이자 여성도 배워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이 확산된 결과였다.

물론 그 당시 여성 교육의 현실을 과장하려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여성

9) 김경일, 『여성의 근대, 근대의 여성』, 푸른역사, 2004, 282면.
10) 박선미, 『근대 여성, 제국을 거쳐 조선으로 회유하다』, 창비, 2007, 41면.

중등교육의 개선 시점이 1920년대 중반인 까닭은 그제야 1道 1校의 설립 원칙에 따라 공립보통학교의 증설이 일단락되었기 때문이다. "1921년부터 1925년까지 10개의 공립고보가 설립된 것에 비하여 여고보는 이 기간 동안 하나의 학교도 설립되지 않았다."[11] 1944년에 실시된 식민지 조선인 학력 조사에서도 교육제도의 성적 불평등은 현저했다. 여성인구 1,259만 9,001명 중 무교육자는 1,121만 1,835명(약 89%)이었고, 중등교육 이상의 학력자는 4만 1,142명(0.3%)이었다. 반면에, 1,252만 1,173명의 남성인구 중 무교육자는 843만 940명(67.3%)이었고, 중등교육 이상의 학력자는 18만 7,938명(약 1.5%)이었다.[12] 남녀 차별에다 일제에 의한 민족적 차별까지 고려하면, "절쪽바리 教育"이라는 김기전의 말로도 부족할 만큼 여성 교육의 불평등은 식민지시기 내내 극심했다.[13] 비록 1920년대 중반부터 여성 교육이 본격적으로 개선되기 시작했다고 하더라도 중등교육 이상의 학력을 가진 여성은 사회 전체에서 소수였다.

그러나 그 점에서 적어도 경성만큼은 예외였다. 여성 교육의 수요에 부응하여 여성 교육기관이 집결한, 여성 교육의 이른바 "경성 중심성" 때문에 경성에서 중등교육 이상의 여성 학력자는 일상적인 존재였다.[14] 경성에 집결한 각종의 언론·출판기구 관계자들이 새로운 독서인구의 출현을 간과할 리가 없었다. 그중 발군의 감각을 보인 출판기구는 개벽사였다. 1922년에 6월 창간되었던 개벽사의 여성잡지 『부인』이 1923년 8월호를 끝으로 『신여성』으로 개편되고, 『신여성』이 여성잡지로는 처음으로 정기간행물답게 계속 발행될 수 있었던 까닭은 그 새로운 독서인구 때문이었다.[15] 한편, 신문사도 개벽사의 뒤를 따라 발빠르게 움직였다. 신문 지면에서 여성 섹션은 신문의 증면과 함께 개설되었다. 신문의 증면이 가장 빨랐던 『조선일보』의 경우(4면→조간 2면·석간 4면)에는 1924년 11월 23일부터 석간 3면에 "가뎡부인"

11) 박철희, 「식민지기 한국 중등교육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2002, 34면.
12) 오성철, 『식민지 초등교육의 형성』, 교육과학사, 2000, 411면.
13) 金起瀍, 「朝鮮의 절쪽바리 教育」, 『新女性』 2-3, 1924.03. 3면.
14) 김수진, 『신여성, 근대의 과잉』, 소명출판, 2009, 72-76면.
15) 『新女性』 이전의 여성잡지로는 『가뎡잡지』(1906.06. 창간), 『녀ᄌᆞ지남』(1908.05.), 『자선부인회잡지』(1908.08.), 『우리의 가뎡』(1913.12.), 『女子界』(1917.12.), 『女子時論』(1920.01.), 『新女子』(1920.03.) 등이 있었다. 그중 新文社의 『우리의 가뎡』만이 만 1년간 매월 발행되었고, 나머지는 단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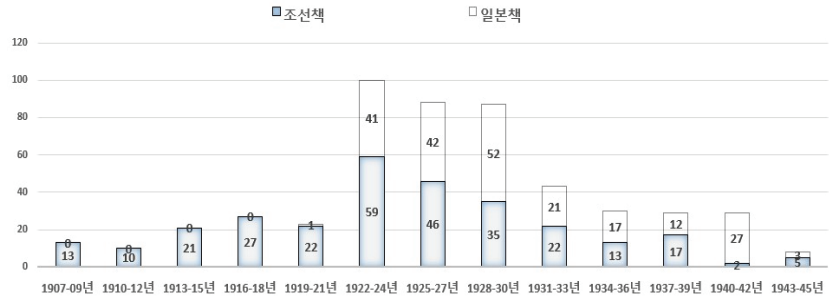
란이 상설되었다. 1924년 10월 8일에 "趣味와 實益 家庭婦人欄, 勸奬과 懸賞 少年少女欄"의 신설을 예고했던 『동아일보』의 경우에는 그 두 란을 부록으로 취급하다가 증면(4면→6면)이 단행된 1925년 8월 11일부터 3면에 정착시켰다.[16] 증면이 가장 늦었던 『매일신보』의 경우 1923년 11월 25일부터 1927년 12월 11일까지 부록으로 "婦人과 家庭"을 발행하다가 증면(4면→8면)이 단행된 1930년 2월 11일부터 "少年少女"와 "家庭" 두 섹션이 3면과 4면에 정착했다.

책시장 또한 1920년대 중반을 전후한 그 변화에 동참했다. 이를테면, 출판사・서점의 판매도서목록집에 반영된 책 분류법에 여성 관련 책들의 분류항목이 완전히 편입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여성 교육이 근대화의 일환이라는 인식 때문에 여성 관련 책은 책시장에서 일찍부터 유통되었다. 하지만 판매도서목록집 내에서 그 책들이 하나의 독립적인 항목을 이루지는 못했다. 해당 분류항목이 처음 등장한 판매도서목록집은 1914년에 발행된 신문관의 판매도서목록집과 그 무렵에 발행된 것으로 추정되는 新文社의 판매도서목록이었다. 하지만 "教育及家政書類"라는 항목명처럼 독립 항목이 아니라 교육서와 함께였고, 더구나 항목 자체도 한시적으로만 존재한 후 사라졌다.[17] 그러다 1927년에 발행된 박문서관의 판매도서목록집에서부터 "家庭學書類"의 항목이 완전히 상설되었다.[18] 그 '가정학서류'의 책들은 『新舊朝鮮料理法』, 『朝鮮無雙新式料理製法』, 『諺文家庭寶鑑』, 『最新日用家庭寶鑑』, 『名媛新女子寶鑑』, 『新訂家政學』, 『洋服裁斷裁縫法全書』, 『文化生活家庭讀本』, 『家庭教育』, 『朝鮮料理製法』, 『朝鮮裁縫全書』, 『裁縫參考書』, 『新式婦人治家法』이었다.

그러나 여성 독서인구의 성장만으로는 [그래프 1]이 보여준 급격한 변동을 제대로 설명하기 어렵다. 1910년대와 1930년대의 그래프 궤적이 시사하듯이 그보다는 더 완만한 상승세가 여성 독서인구가 증가해 간 현실과 부합하기

16) 「趣味와 實益 家庭婦人欄, 勸奬과 懸賞 少年少女欄 兩欄 新設」, 『東亞日報』, 1924.10.08. 3면.
17) 『新文館發賣書籍總目錄』, 新文館, 1914.05; 『新文社代理部發售書籍目錄』, 新文社(발행일 불명). 新文社의 것은 전지로 발행된 판매도서목록이었다. 신문관 판매도서목록집의 "教育及家庭書類"의 책들은 『簡明教育學』, 『師範教育學』, 『新撰普通教育學』, 『學校管理法』, 『新編小學教授法』, 『小學教授法』, 『普通教育國民儀範』, 『新訂家庭學』, 『漢文家庭學』, 『新訂育兒法』이었다. 新文社의 판매도서목록의 "教育及家庭書類"에는 신문관의 것에 3종의 책이 더 추가되었다. 그 3종은 『新選諺文家庭學』, 『教育儀範』, 『五倫行實』이었다.
18) 『新刊圖書目錄』, 博文書舘, 1927.09.

때문이다. 그렇다면 급격한 변동의 또 다른 원인은 무엇이었을까? 이와 관련해서는 제국 본토 출판기구의 개입을 고려해야 한다.



[그래프 2] 여성 표제어 책들의 지역별 규모

[그래프 2]는 여성 지시어 책 508종을 생산지별로 구분한 것이다. 그래프의 막대에서 푸른빛의 하단은 식민지 조선의 책 종수(“조선책”)를, 투명한 상단은 제국 본토의 책 종수(“일본책”)를 뜻한다. 508종 중 조선책은 292종, 일본책은 216종이었다. 일본책은 조선책보다 규모가 작았지만, 1922년부터 본격적으로 등장하여 특정 시기에는 조선책의 규모를 압도했다. 이와 같은 일본책 때문에 그래프의 변동 폭이 급격해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20년대의 변동 폭에 대한 의문은 여전하다. 급변을 주도했던 일본책의 규모가 1930년대에 들어서면서 절반 이하로 급감했기 때문이다. 이는 식민지 지식문화의 특수성 때문이었다. 그 특수성은 이른바 ‘내지연장주의’보다 ‘조선특수사정’을 더 우선했던 조선총독부의 통치 강령이 작용한 결과였다. 이를테면, 제국 본토보다도 훨씬 더 가혹했던 ‘출판경찰’, 의무교육제도의 지연, 제국 본토의 문부성보다는 조선총독부의 학무국 편찬 교과서를 장려했던 교육정책, 식민지인의 열악한 경제 상황 등이 어우러진 결과 식민지만의 독특한 지식문화가 형성되었다. 그런데 뜻밖에도 식민지 지식문화의 특수성은 제국 본토의 출판기구에게는 양날의 검과 같았다. 1920년대에 들어선 이후 제국 본토의 출판기구는 식민지 출판기구가 접근할

수 없었던 외설물을 앞세워 조선어 중앙지의 책 광고란을 잠식하기 시작했다. 6·10 독립만세운동, 조선공산당 사건 등과 같은 정치적 소요가 한창인 가운데 책 광고란에 등장했던 외설물은 정치적 소요가 어느 정도 정리되자마자 식민지 출판경찰의 표적이 되었다. 관련 연구에 따르면, 책의 금지처분 건수의 절정기는 1930년이었고, 1930년대 중반을 전후하여 이른바 '불량광고'의 차단 때문에 신문을 대상으로 한 풍속괴란 행정처분 건수도 폭증했다.[19] 그 두 가지 사안에서 제국의 외설물은 가장 큰 타격을 받았다.

문제는 216종의 일본책 중 상당수가 외설물이었다는 사실이다. 그 216종 중 98종(약 45%), 그러니까 거의 절반에 육박했다. 그 98종 외설물의 시기별 분포를 보면, 1921-25년에 48종, 1926-30년에 29종, 1931-35년에 12종, 1936-40년에 6종, 1941-45년 3종이었다. 이런 감소 추세는 1920년대 양적 규모의 특이성을 충분히 설명해준다.

주목하고 싶은 점은 외설물 차단의 메시지다. 제국 본토의 출판기구는 자신의 강점만을 믿고 절대우위, 비교우위의 책들을 식민지 책시장에 무작정 들이밀 수가 없다는 사실을 배웠다. 식민지 지식문화의 사정에 맞추어 대응해야 했다. 달리 생각하면 그것은 식민지의 여성을 둘러싸고 식민지인들 사이에서뿐만 식민지인과 제국인 간에도 경쟁이 격화되어 갔다는 것을 뜻한다. 당연히 그 경쟁은 제국과 식민지, 남성과 여성 사이에서 발생한 정치적 역학에 경제적 역학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였다. 이 점을 염두에 두고 책들의 시기별 양상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3. 여성 표제어 책의 시기별 양상과 그 특징

시기별 책들의 양상을 검토하기 위해 1905-1945년을 세 시기로 구분했다. 시기 구분의 기준은 앞의 두 그래프에서 확인한 1920년대의 특이성이다. 그래서 1920년대 전체를 세 시기 중 한 시기로 설정하고, 나머지 두 시기는

19) 이혜령, 「식민지 섹슈얼리티와 검열」, 정근식 외 편, 『검열의 제국: 문화의 통제와 재생산』, 푸른역사, 2016, 213-220면.

1920년대의 앞 시기와 뒤 시기 전체로 설정했다. 1905-1920년, 1921-1930년, 1931-1945년이 그 세 시기인 셈이다. 책 제목에서 여성 지시어와 다른 낱말과의 조합 양상, 책의 광고 빈도수, 책의 생산지 등의 특징에 분석의 초점을 맞췄다. 시기별 책들의 양상을 검토하기에 앞서 508종 책들의 분포도를 먼저 살펴보자.[20]

[표 1] 여성 표제어 책들의 대분류 양상: 1905-1945

	식민지 조선					제국 본토				
	책 종수		광고횟수		종수당 횟수	책 종수		광고횟수		종수당 횟수
	종수	비중	횟수	비중		종수	비중	횟수	비중	
한서	2	0.7%	60	2.2%	30.0	0	0.0%	0	0.0%	0.0
인문학	2	0.7%	7	0.3%	3.5	1	0.5%	1	0.0%	1.0
사회과학	71	24.3%	680	25.2%	9.6	35	16.1%	109	3.9%	3.1
자연과학	0	0.0%	0	0.0%	0.0	0	0.0%	0	0.0%	0.0
기술과학	17	5.8%	231	8.5%	13.6	5	2.3%	33	1.2%	6.6
교재	49	16.8%	424	15.7%	8.7	7	3.2%	85	3.0%	12.1
예술대중문화	34	11.6%	300	11.1%	8.8	137	62.8%	2,510	88.9%	18.3
문학	111	38.0%	967	35.8%	8.7	29	13.3%	76	2.7%	2.6
기타	6	2.1%	34	1.3%	5.7	2	0.9%	7	0.2%	3.5
합계	292	100%	2,703	100%	9.3	216	100%	2,821	100%	13.1

[표 1]은 책 분류표의 대분류 항목에 따라 508종을 분류한 후 해당 항목의 책 종수와 광고횟수, 종수당 횟수를 정리한 것이다. 종수당 횟수는 책 1종의 평균 광고횟수를 말한다. 식민지 조선에서 책 전체의 평균 광고횟수는 9.3회, 제본 본토에서는 13.1회였다. 이 수치보다 클수록 동일한 책이 더 자주 광고된 것이고, 그 수치보다 작을수록 더 다양한 책이 광고된 것이었다. 주의할 점은 사회과학의 규모다. 사회과학의 소분류 항목으로 '여성'이 설정되어 있어서 사회과학에 여성 표제어 책이 포함될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이다. 식민지 조선과 제국 본토 모두에서 사회과학이 큰 비중을 보였던 까닭은 그 때문이다.

20) 책의 분류에 관해서는 이 글 1장의 각주에서 언급한 필자의 연구들을 참조.

이런 사항을 염두에 두고 [표 1]을 살펴보자. 두 지역의 분포도 특징이 확연한데, 식민지 조선의 분포도가 분산적이라면, 제국 본토의 것은 집중적이었다. 식민지 조선의 경우 문학과 사회과학, 교재, 예술・대중문화, 이상 4개 항목이 어느 정도의 양적 규모를 보였다. 제국 본토의 경우에는 예술・대중문화가 홀로 압도적인 비중을 보였는데, 그 집중성은 광고횟수에서 더욱 두드러졌다. 예술・대중문화 외에 광고횟수 비중이 5%를 넘는 항목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는 평균 광고횟수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예술・대중문화만이 책 전체의 평균 광고횟수(13.1회)를 초과했다. 반면에 식민지 조선에서는 책 종수가 적은 기술과학과 한서만이 평균 광고횟수(9.3회)를 초과했다.

제국 본토의 책들이 유난히 특정 분야에 그것도 특정 책을 반복해서 광고하는 형태로 몰렸던 까닭은 단지 그 책들이 주력 상품이었기 때문만은 아니다. 달리 생각하면, 제국 본토의 책들이 식민지의 특수한 조건에 기초한 지식문화의 장벽을 통과하고 적응하는 일이 쉽지 않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를테면, 교재의 규모는 제국 본토보다 식민지 조선에서 훨씬 컸다. 책들의 종류도 제국 본토의 경우에는 『高等女學講義錄』(광고횟수 29회), 『女學講義錄』(28회), 『産婆看護婦』(21회)와 같은 통신강의록이 주종이었던 데 비해 식민지 조선의 경우에는 『新撰國文家庭尺牘傍附漢字』(45회)와 같은 작문 교재에서부터 『朝鮮中學校商業學校高等女學校高等普通學校入學試驗問題答案集』(8회)과 같은 수험서, 『女子高等普通學校國語自習書』(8회)와 같은 참고서에 이르기까지 그 종류가 다양했다. 이는 식민지 교육제도에 최적화된 책을 발행하는 데 제국 본토의 출판기구보다는 식민지 출판기구가 더 유리했던 사정을 증언한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제국 본토의 출판기구가 어려움만 겪었던 것은 아니다. 예술・대중문화의 주종이었던 외설물이 대변하듯이 제국의 책들은 기본적으로 식민지의 책들에 비해 비교우위, 절대우위에 놓여 있었기 때문이다. 당연히 식민지인들의 뇌리에도 제국의 책이 훨씬 더 근대적인 것이자 표준적인 것으로 각인되어 있었다. 예컨대, 사회과학의 경우 식민지 조선의 주요 책들은 『國文新撰家政學』(64회), 『婦人儀範』(56회), 『女子讀本』(55회), 『愛의眞境』(33회), 『新撰家政學』(29회), 『婦人言行錄』(29회) 등이었고, 제국 본토의 주요 책들은

『婦人公論大學』(14회), 『浮世繪婦人風俗集』(10회), 『夫婦讀本』(10회), 『家庭副業百科全集』(9회), 『社會進化と婦人の地位』(8회), 『婦人論』(7회) 등이었다. "戀愛, 性慾, 處女의 貞操와 結婚" 등의 주제를 다룬 『愛의眞境』을 고려하더라도[21] 식민지의 사회과학 책들은 여성을 주로 '가정'과 결부지었던 데 비해 제국의 사회과학 책들은 여성의 주체성을 강조한 '부인'론이 강세였다. 책 내용도 제국 본토의 것이 훨씬 더 학술적·진보적이었다.

시기 구분 없이 전체 시기를 대상으로 개괄적으로 살펴본 이상의 내용을 기억하며, 이제 시기별 변화상을 구체적으로 확인해보자.

1) 1905-1920년의 양상

[표 2] 여성 표제어 책들의 대분류 양상: 1905-1920

	식민지 조선				
	책 종수		광고횟수		종수당 횟수
	종수	비중	횟수	비중	
한서	1	1.3%	6	0.4%	6.0
인문학	0	0.0%	0	0.0%	0.0
사회과학	27	34.2%	397	29.6%	14.7
자연과학	0	0.0%	0	0.0%	0.0
기술과학	4	5.1%	168	12.5%	42.0
교재	22	27.8%	299	22.3%	13.6
예술대중문화	3	3.8%	143	10.7%	47.7
문학	17	21.5%	296	22.1%	17.4
기타	5	6.3%	31	2.3%	6.2
합계	79	100%	1,340	100%	17.0

방금 살펴본 [표 1]을 기준으로 [표 2]를 보면, 예술·대중문화가 상위 랭크에서 빠지고, 사회과학과 교재의 비중이 1.5배 증가한 반면, 문학은 그만큼 감소했다. 사회과학이 수위를 차지한 데에는 여성 항목이 배정된 이점의

21) 「『愛의眞境』」, 『東亞日報』, 1923.4.14. 1면.

영향이 적지 않을 것이다. 다음으로 책 전체의 평균 광고횟수가 [표 1]에 비해 거의 2배 가까이 상승했는데, 아직은 책시장에 다양한 책이 유통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만큼 책시장의 규모가 작았던 셈이다.

당시 출판기구들이 광고에 열을 올렸던 책들은 『愛國婦人傳』(143회), 『精選家庭救急方』(101회), 『家庭百方吉凶祕訣』(90회), 『國文新撰家政學』(64회), 『婦人儀範』(56회), 『녀ᄌᆞ독본』(55회), 『新撰國文家庭尺牘傍附漢字』(45회), 『朝鮮料理製法』(44회), 『諺文家庭簡牘』(43회), 『家庭簡牘』(43회) 등이었다. 이 10종의 책들 중 한일강제병합 이전 시기까지만 책 광고에 등장한 책은 『愛國婦人傳』, 『精選家庭救急方』, 『國文新撰家政學』, 『녀ᄌᆞ독본』, 『新撰國文家庭尺牘傍附漢字』였다. 나머지 5종 중 『婦人儀範』은 한일강제병합 전후 전체 시기에 걸쳐 있었고, 그 밖의 책들(『家庭百方吉凶祕訣』, 『朝鮮料理製法』, 『諺文家庭簡牘』, 『家庭簡牘』)은 한일강제병합 이후에 등장한 책들이었다.

여기서 확인되는 책 제목 변화상의 핵심은 한일강제병합 이후 여성을 국가와 연결하는 상상력의 소멸 내지 은폐다. 잘 알려져 있듯이 국가의 축도로서 가정을 상상했던 주자학적 세계관이 붕괴한 자리에서 가정은 국민의 생산과 재생산의 주체로서 국가와의 관계를 다시 설정하게 되었고, 여성은 가정의 실무책임자로서 자리매김하였다. 장지연의 두 책 『愛國婦人傳』(1907)과 『녀ᄌᆞ독본』(1908)은 당시에 그와 같은 '여성-가정-국가'의 삼각관계를 보여준 대표적인 책이었다. 물론 『녀ᄌᆞ독본』은 잔다르크의 일대기를 다룬 『愛國婦人傳』과 같이 여성과 '국가(國)'를 직접적으로 연결하고 있지는 않았지만, 그 내용이 동양의 현모와 함께 국가에 헌신한 서양 여성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신여성의 전범을 보여주려고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일강제병합 직후인 1910년 11월 19일에 『녀ᄌᆞ독본』을 비롯한 책들에 내려진 조선총독부의 대대적인 금서 처분(51종 66책)이 경고했듯이 국가에 대한 상상력을 명시적으로 드러내는 일은 식민지인에게 대단히 어려운 일이 되어버렸다.[22] 1900년대의 책 제목에

22) 「朝鮮總督府 警務總監部 告示 第七十二號」, 『朝鮮總督府官報』 69, 1910.11.19. 이 출판검열 사건에 대해서는 장신, 「한국강점 전후 일제의 출판통제와 '51종 20만권 분서(焚書)사건'의 진상」, 『역사와 현실』 80, 한국역사연구회, 2011, 211-244면 참조.

표기되었던 “國文”이 “諺文”으로 바뀌거나 아예 빠져버렸던 일도 그 때문이었다.

‘여성-가정-국가’에서 국가를 지시하는 말이 금지어가 됨으로써 책 제목에서 여성을 현시하는 방식도 달라질 수밖에 없었다. 이를테면, 1911-1920년에 광고 빈도수가 20회 이상인 책들은 『家庭百方吉凶祕訣』(90회), 『朝鮮料理製法』(44회), 『諺文家庭簡牘』(43회), 『家庭簡牘』(43회), 『家庭救急方』(33회), 『新撰家政學』(29회), 『家庭救急』(29회), 『女子忠孝錄』(27회), 『東洋歷代女史詩選』(27회), 『時體諺文家庭尺牘』(26회), 『列女傳』(25회), 『日鮮語學校家庭教育話』(24회), 『女子寶鑑』(23회) 등이었다. 보다시피 국가의 빈자리까지 가정이 차지하게 되었다. 모친과 시모의 전수에 전적으로 의존했던 방식에서 벗어나 가사를 과학적・체계적으로 익혀 그 효율성 제고를 목적했던 ‘가정학’은 식민 권력에게도 필요했기 때문이다.[23]

이와 함께 1910년대에는 여성 지시어와 고전적인 말들과의 결합이 활발했다는 사실도 잊어서는 안 된다. 고전 시가나 구소설과 같은 문학책뿐만 아니라 한문 서간의 전통을 견지한 ‘척독, 간독’ 등도 그 점을 잘 보여준다.[24] 얼핏 생각하면, 국민국가를 향한 근대적 이상이 좌절됨으로써 나타난 반동 현상으로 그런 책들의 등장을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은 그와 정반대일 수 있다. 왜냐하면, 출판기구들은 조선총독부의 각종 통제・차별 정책 때문에 새로운 시장 개척이 불가피했는데, 인구의 절반을 차지했던 여성인구는 미개척의 시장이었기 때문이다. 아직은 기대에 못 미치지만, 성장 가능성만큼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었다. 여성 지시어를 ‘충효, 동양, 열전’ 등과 같은 말과 결합한 고전적인 책들은 전체 인구의 반을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수백 년 동안 문자문화의 주변에 머물러 있었던 여성인구를 끌어들이기 위한 식민지 출판기구의 전략적 조치였다.

---

23) 근대 가정학에 대해서는 임상석, 「근대계몽기 가정학의 번역과 수용」,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27,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13; 김경남, 「근대계몽기 가정학 역술(飜譯・編述) 자료를 통해 본 지식 수용 양식」, 『인문과학연구』 46, 강원대 인문과학연구소, 2015; 이지연・전상숙, 「식민지시기 근대 과학적 지식으로서 가정학의 형성」, 『이화사학연구』 52, 이화사학연구소, 2016; 안예리, 「20세기 전반기 가정학 교과서의 번역과 어휘」, 『한국사전학』 31, 한국사전학회, 2018.

24) 식민지시기의 서간 교범에 대해서는 홍인숙, 『한국 근대 척독서 연구』, 태학사, 2020; 김성수, 『한국 근대 서간 문화사 연구』, 성균관대출판부, 2014 참조.

2) 1921-1930년의 양상

1920년대부터 식민지 조선의 책시장에 본격적으로 개입했던 제국 본토 출판기구의 주요 책들을 먼저 살펴보자. 그 책들은 『裸體美人寫眞畵集』(203회), 『男女生殖器圖解硏究』(168회), 『男女性慾及性交の新硏究』(103회), 『男女祕密草紙』(87회), 『結婚の當夜』(84회), 『女子の祕密』(75회), 『男女愛の手紙』(73회), 『性典』(60회), 『女の裸體美』(58회), 『美人裸體寫眞』(58회) 등이었다. 이처럼 여성 지시어는 거의 대부분 외설물에서 등장했다. 1920년대에 유통된 제국의 외설물 중 상당수는 사와다 슌지로(澤田順次郎)의 저작이었다. 사와다 슌지로는 『性』, 『性の知識』, 『性慾と戀愛』 등의 잡지와 수십 종의 성 관련 책을 출판한 인물이자 학계에서는 이단아 취급을 받은 통속 성과학자였다.[25] 사와다 슌지로의 책을 필두로 한 제국의 외설물에서 여성 지시어는 주로 여성의 육체 및 성관계와 관련한 말들과 조합을 이루었다.

한편, 이 시기에 식민지 출판기구들의 여성 표제어 책들 중 광고 빈도수가 높았던 책은 『朱子家訓』(54회), 『離婚의裁判』(37회), 『첫사랑』(33회), 『愛의眞境』(33회), 『四柱自解家庭寶鑑』(31회), 『婦人言行錄』(29회), 『最新日用家庭寶鑑』(27회), 『노라 一名 人形의家』(27회), 『新女子寶鑑』(25회), 『處女의花環』(25회) 등이었다. 이 책들 중 『朱子家訓』이나 『家庭寶鑑』, 『婦人言行錄』은 고전적・전통적인 여성상을 지향한 책들이었다. 『新女子寶鑑』도 "女子"에 "新"이 첨부되어 새로운 여성성을 지향하는 듯했지만, 그 실은 신라부터 조선까지의 열녀・효부・현모를 다룬 책이었다. 그런데 그 외 나머지 책들은 그 5종의 책과 성격을 달리했다. 이른바 딱지본 형태의 대중소설인 『離婚의裁判』, 투르게네프 원작의 『첫사랑』, 사회학자 요네다 쇼타로(米田庄太郎)의 「戀愛と人間愛」(1913)를 부록으로 첨부하며 연애・결혼・성욕을 학술적으로 다룬 『愛의眞境』, 헨리 입센 원작의 『노라 一名 人形의家』, 노자영의 시집 『處女의花環』은 모두 자유연애와 남녀평등의 결혼관을 전제한 근대적 여성상을 지향했기 때문이다. 이 책들은 『家庭寶鑑』과 같은 책들처럼 집안에서의 여성을 다룬 것이 아니라 『노라 一名 人形의家』가

25) 권보드래, 『연애의 시대』, 현실문화연구, 2003, 169-171면.

대변하듯이 집 밖으로 여성을 불러내는 책들이었다.

집안보다는 집 밖의 여성을 환기하는 제목의 책들은 시간이 갈수록 더 많아졌다. 이를테면, 1926-30년에 국한해서 광고 빈도수 상위를 차지한 책들을 조사하면, 『사랑을차저서』(14회), 『吉凶判斷法家庭行年』(11회), 『浮世繪美人版畵集』(10회), 『가정자습강의록』(10회), 『新式婦人治家法』(9회), 『사랑의成功』(9회), 『革命家의안해』(8회), 『빨래하는處女』(7회), 『愛人의사랑』(7회), 『첫사랑의시절』(7회) 등이었다. "사랑"이라는 단어가 더 유행하던 가운데, 기혼 여성("婦人")보다는 미혼 여성("處女, 愛人")을 뜻하는 말이 이전 시기보다 더 많아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새롭게 유행하기 시작한 여성 지시어들은 자유연애를 전제함으로써 남녀의 성적 관계를 암시했다. 그런 점에서 식민지의 책들과 제국의 외설물은 일맥상통하는 면이 없지 않았다.

주목할 사실은 에로티시즘을 물질화하는 방식, 즉 책 종류의 차이다. 제국 본토의 출판기구들은 에로티시즘을 노골적으로 보여주는 외설물에 집중했던 데 반해 식민지의 출판기구들은 에로티시즘을 우회적 혹은 예술적으로 형상화하는 문학책에 큰 관심을 보였다. 문학을 우회로로 삼았던 政論이 제대로 발화되지 못했듯이 문학에서도 에로티시즘이 제대로 표현되지 못했지만 말이다. 외설물과 문학책의 중간에 놓여 있었다고 볼 수 있는 『愛의眞境』과 같이 성을 중립적인 입장에서 다루는 학술서의 형식은 식민지 출판기구의 지속적인 관심을 끌어내지 못했다. 방금 소개한 20종의 책, 그러니까 1920년대 전체를 대상으로 한 10종의 책 중 4종이, 1920년대 후반기의 책 10종 중 6종이 문학책이었다. 여성 표제어 책에서 문학책의 비중은 점점 증가해갔다.

[표 3] 여성 표제어 책들의 대분류 양상: 1921-1930

.	식민지 조선					제국 본토				
	책 종수		광고횟수		종수당 횟수	책 종수		광고횟수		종수당 횟수
	종수	비중	횟수	비중		종수	비중	횟수	비중	
한서	1	0.6%	54	4.9%	54.0	0	0.0%	0	0.0%	0.0
인문학	1	0.6%	6	0.5%	6.0	0	0.0%	0	0.0%	0.0
사회과학	33	21.4%	266	24.2%	8.1	12	8.8%	39	1.9%	3.3

자연과학	0	0.0%	0	0.0%	0.0	0	0.0%	0	0.0%	0.0
기술과학	6	3.9%	20	1.8%	3.3	3	2.2%	21	1.0%	7.0
교재	19	12.3%	103	9.4%	5.4	4	2.9%	35	1.7%	8.8
예술대중문화	26	16.9%	141	12.8%	5.4	100	73.0%	1,956	93.1%	19.6
문학	67	43.5%	507	46.1%	7.6	16	11.7%	45	2.1%	2.8
기타	1	0.6%	3	0.3%	3.0	1	0.7%	5	0.2%	5.0
합 계	154	100%	1,100	100%	7.1	136	100%	2,101	100%	15.4

예상한 바와 같이 제국 본토의 책들은 외설물밖에는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외설물의 비중은 압도적이었다. 이러한 제국 본토 출판기구의 집중화전략에 식민지 출판기구는 주력 분야를 재설정함으로써 대응했다. 이에 따라 앞선 시기에서 사회과학(34.2%), 교재(27.8%), 문학(21.5%) 순이었던 비중의 순서는 문학(43.5%), 사회과학(21.4%), 예술・대중문화(16.9%), 교재(12.3%)로 바뀌었다. 문학의 비중이 배 이상 증가하고 예술・대중문화가 광고 비중 상위에 새롭게 진입하던 가운데 사회과학의 비중은 1/3 정도 감소하고 교재의 비중은 반 토막 난 셈이었다.

식민지 책들 사이에서 문학책의 중심화와 함께 좀 더 주의 깊게 봐야 할 지표는 교재의 비중이다. 1920년대에 들어서면서 여성인구의 취학률 및 진학률, 관련 교육기관이 본격적으로 개선・증설되기 시작했다는 점은 이미 앞에서 확인했다. 그러나 교재의 비중은 오히려 대폭 줄어들었다. 식민지의 출판기구들은 집 밖으로 나오기 시작했던 여성들, 특히 여학생을 주시하며 새로운 교재의 제작과 홍보보다는 근대적인 연애・결혼을 전면에 내세운 문학책의 양산과 홍보에 역량을 더 많이 쏟았다. 무엇보다 여성용 교재의 수요는 매우 제한적이었지만, 문학책의 수요는 남녀 모두를 아우를 수 있었기 때문이다. 요컨대, 식민지의 책들 중에서 "연애의 시대"를 맞이하여 가장 큰 혜택을 본 여성 표제어 책은 문학책이었다.[26] 동시에 1920년대는 그 문학책을 중심으로 여성 표제어 책의 표상이 전통적 여성상에서 근대적 여성상으로 바뀌는 전환기였다고 할 수 있다.

26) 1920년대의 연애열과 그에 따라 유행했던 책들에 대해서는 권보드래, 『연애의 시대』, 현실문화연구, 2003, 91-178면 참조.

3) 1931-1945년의 양상

[표 4] 여성 표제어 책들의 대분류 양상: 1931-1945

	식민지 조선					제국 본토				
	책 종수		광고횟수		종수당 횟수	책 종수		광고횟수		종수당 횟수
	종수	비중	횟수	비중		종수	비중	횟수	비중	
한서	0	0.0%	0	0.0%	0.0	0	0.0%	0	0.0%	0.0
인문학	1	1.7%	1	0.4%	1.0	1	1.2%	1	0.1%	1.0
사회과학	12	18.6%	18	6.5%	1.5	23	28.4%	70	9.7%	3.0
자연과학	0	0.0%	0	0.0%	0.0	0	0.0%	0	0.0%	0.0
기술과학	7	11.9%	43	16.3%	6.1	2	2.5%	12	1.7%	6.0
교재	8	13.6%	22	8.4%	2.8	3	3.7%	50	6.9%	16.7
예술대중문화	4	8.5%	15	6.1%	3.2	37	45.7%	554	76.8%	15.0
문학	27	45.8%	164	62.4%	6.1	13	16.0%	31	4.3%	2.4
기타	0	0.0%	0	0.0%	0.0	1	1.2%	2	0.3%	2.0
합계	59	100%	263	100%	4.5	80	100%	720	100%	9.0

여성 표제어 책들의 규모는 일시적 팽창기이자 여성상의 전환기였던 1920년대를 뒤로하며 양적 안정세(그래프1)를 보였는데, 그 규모를 구성했던 책들의 대략적인 양상은 표4와 같았다. 먼저 제국 본토 출판기구들의 책부터 살펴보자. 1920년대보다는 예술・대중문화에 대한 집중도가 다소 완화되었지만, 그럼에도 여성 표제어 책 중 2권 중 1권은 예술・대중문화의 책이었다. 하강세를 보였던 예술・대중문화와 반대로 뚜렷한 상승세를 보였던 항목은 사회과학이었다. 사회과학의 책 종수 비중은 8.8%에서 28.4%로, 광고횟수 비중은 1.9%에서 9.7%로 증가했기 때문이다. 이는 책 분류표의 '여성' 항목이 사회과학의 하위항목으로 설정된 영향이 컸다.

제국 본토에서 빈도수 상위를 차지했던 책들은『戀愛書簡大辭典』(139회),『戀愛文集辭典』(138회),『男女慰問手紙文集』(103회),『男女隱し藝宝典』(43회),『女學講義錄』(28회),『産婆看護婦』(21회),『日本男女活動俳優銘鑑』(17회),『極彩色婦人風俗畵集』(17회),『世界美人裸體美藝術寫眞畵集』(15회),『婦人公論大學』(14회) 등이었다. 예술・대중문화가 7종, 교재(통신강의록)가 2종(『女學講義錄』,『産婆看護婦』),

사회과학 1종(『婦人公論大學』)이었다. 상승세였던 사회과학 분야의 책이 적은 이유는 책 1종의 평균 광고횟수 때문이었다. 예술・대중문화와 교재의 평균 광고횟수(각각 16.7회, 15.0회)만 책 전체의 평균 광고횟수(9.0)를 상회했다. 외설물이 광고 빈도수 상위를 휩쓸었던 앞선 시기와 비교하면, 외설물은 종적을 감추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시기에 외설물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거의 대부분(21종 중 18종)은 광고 빈도수가 5회 미만이었다. 다시 말하면, 제국의 책들은 성욕의 대상으로서 여성성을 표상하는 대신 연애 및 교육과 관련하여 여성성을 표상했다.

다만 그 10종의 책들 중 특이한 책은 『男女慰問手紙文集』이라고 할 수 있다. 연애가 아니라 '위문'이 첨부되었기 때문이다. 전선의 병력을 위로하기 위한 그런 서간집과 같은 책의 유행은 총력전체제에 따른 현상이었다. 주의할 사실은 1931-1945년의 기간 중 최소 절반이 총력전체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따른 책은 적었다는 점이다. 연애 서간과 관련된 책의 광고 빈도수가 증언하듯이 예술대중문화에서 외설물과 광고 빈도수 상위에 포함된 책들을 제외한 나머지 12종의 책들 중 광고 빈도수가 3회 이상 되었던 책은 『映畵男女俳優寫眞銘鑑』(10회), 『男女手紙の文』(10회), 『男女一代の運勢』(10회), 『家相方位運命鑑定祕錄』(4회)이었다. 연애와 연예, 다시 말해 전시상황과 크게 관련 없는 책들이 예술・대중문화의 주종이었다.

예술・대중문화 다음으로 비중이 높았던 사회과학 분야의 책도 새로운 여성상을 지향했다. 그 변화의 방향성은 한마디로 탈사회주의였다. 改造社의 『社會進化と婦人の地位』(8회)과 『婦人論』(7회), 『婦人解放論』(2회)과 같은 책이나 白揚社의 『家族私有財産及國家の起源』(2회), 『安全確實姙娠調節の方法に就て』(1회)와 같은 책이 1920년대에 사회주의 여성상의 확산을 주도했다. 1920년대에 광고 빈도수 최상위를 기록한 『家庭副業百科全集』(9회)과 같이 사회주의와 별 상관없는 책이 없지 않았지만, 그런 책은 사회과학에서 주변적이었다. 하지만 1930년대 들어서면서 그런 경향은 일변했다. 『浮世繪婦人風俗集』(10회), 『夫婦讀本』(10회), 『理想の家庭』(6회)처럼 광고 빈도수가 높았던 책들로부터 講談社의 『子供知識』(3회), 『孝女白菊』(1회) 혹은 主婦之友社의 『主婦之

友花嫁講座』(1회), 『母の愛育全集』(1회), 『家庭生活日記』(1회)과 책들과 같이 광고 빈도수가 낮은 책들에 이르기까지 가부장적인 억압에서 해방된 여성상과는 정반대로 아내나 어머니로서의 여성상을 강조하는 경향이 두드러졌기 때문이다. 『新體制の結婚常識讀本』(1회) 시사하듯이 1930년대 말을 전후하여 가정과 여성을 연결하는 여성상은 군국주의에 근간한 것이었다.[27]

한편, 다소 분산적인 분포도를 보인 제국 본토와 다르게 식민지 조선의 경우에는 앞선 시기보다 더 집중적인 분포도를 보였다. 단연 그 주역은 문학이었다. 문학의 책 종수 비중은 상당히 높은 수준(43.5%→45.8%)을 유지한 상태에서 광고횟수 비중이 약 1.3배(46.1%→62.4%) 증가했다. 앞선 시기에 문학과 함께 상위를 차지했던 사회과학의 비중은 하강세를 보였고, 예술·대중문화의 비중은 절반 이하로 급감했으며, 교재의 비중은 정체되었다. 다만 기술과학이 문학 이상으로 뚜렷한 상승세를 보이며 예술·대중문화를 제치고 상위에 진입했다.

문학과 기술과학은 누가 보더라도 무관한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비중이 동반 상승했다. 특히 광고 빈도수 상위의 책들에도 기술과학이 포함되었다. 빈도수 상위의 책은 『그女子의一生』(51회), 『朝鮮家庭醫學全書』(17회), 『愛慾의彼岸』(16회), 『化粧品製造法』(13회), 『사랑과罪』(13회), 『久遠의女像』(12회), 『빗나는그女子』(11회), 『新女性편지투』(9회), 『美人의最後』(8회) 등이었는데, 그 9종의 책 중 문학은 6종, 기술과학은 2종(『朝鮮家庭醫學全書』, 『化粧品製造法』), 예술·대중문화는 1종(『新女性편지투』)이었다.

광고 빈도수 상위의 문학책 6종을 포함하여 이 시기에 문학책은 모두 27종이었는데, 그중 26종이 소설책이었다.[28] 그 26종의 소설책 제목을

27) 木村涼子, 이은주 역, 『주부의 탄생: 일본여성들의 근대와 미디어』, 소명출판, 2013, 187-189면.
28) 나머지 1종은 희곡책 『普通附脚本少年少女歌劇集』(1932)이었다. 26종의 소설책은 다음과 같다. 『美人의最後』(1931), 『戀愛의눈물』(1931), 『사랑과罪』(1931), 『三角戀愛』(1931), 『꿀갓흔사랑』(1931), 『浮碧樓의美人』(1931), 『貧者의사랑』(1933), 『愛의血淚』(1933), 『모던껄俱樂部』(1933), 『愛情의淚』(1933), 『處女의눈물』(1933), 『海婦人』(1936), 『女人』(1936), 『그女子의一生』(1936), 『그女子의눈물』(1937), 『사랑의天國』(1937), 『빗나는그女子』(1937), 『久遠의女像』(1937), 『織女星』(1937), 『愛慾의彼岸』(1937), 『사랑』(1939), 『어머니』(1939), 『딸삼형제』(1940), 『軍國의어머니』(1942), 『愛路歷程』(1943), 『젊은안해』(1943). 괄호 안의 연도는 해당 책이 최초로 광고된 해를 뜻한다.

살펴보면, 눈에 띄는 현상 하나를 발견할 수 있다. 광고 빈도수 최상위를 기록한 이광수의 『그女子의一生』이 대변하는 것처럼 미혼의 젊은 여성을 상징하는 "女, 女子, 女人, 美人, 處女" 등의 단어와 자유연애를 전제하는 "사랑, 戀愛, 愛" 등의 단어가 주류적이다가 1930년대 말에 들어서면 그 양상이 확연히 달라지기 때문이다. 1938년부터 등장한 소설책은 『사랑』(광고횟수 5회), 『어머니』(6회), 『딸삼형제』(3회), 『軍國의어머니』(1회), 『愛路歷程』(2회), 『젊은 안해』(1회)였다. 이렇게 가정의 책임자로서 어머니와 아내라는 표상이 1930년대 말부터 갑자기 등장하기 시작한 까닭은 제국 본토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전시상황에 따른 이른바 '총후 부인'의 역할이 강조되었던 시대적 상황과 관련 깊다.[29] 나도향의 『어머니』가 박문서관의 현대걸작장편소설전집의 한 권으로 소환된 까닭도 그와 같은 시대적 상황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한편, 기술과학을 살펴보면, 1905-20년에는 1905-1945년에 기술과학 분야의 책은 모두 17종(광고횟수 231회)이었다. 시기별로 보면, 1905-1920년에 4종(168회), 1921-1930년에 6종(20회), 1931-1945년에 7종(43회)이었다. 첫 번째 시기에는 『精選家庭救急方』(101회), 『家庭救急方』(33회), 『家庭救急』(29회) 등이, 두 번째 시기에는 『速修自解洋服裁斷裁縫法全書』(5회), 『增修家庭養鷄新編』(5회), 『朝鮮裁縫全書』(4회) 등이, 세 번째 시기에는 『朝鮮家庭醫學全書』(17회), 『化粧品製造法』(13회), 『日用品化粧品製造販賣法』(7회) 등이 광고 빈도수 상위의 책이었다. 첫 번째 시기에는 가정의학 관련 책(4종 3종)이, 두 번째 시기에는 의류 관련 책(6종 5종)이 중심적이었고, 세 번째 시기에는 화장품 관련 책(7종 중 4종)과 가정의학(7종 중 3종)이 기술과학 분야를 양분했다. 이와 같은 책 종류의 변화는 여성 표상의 변화와 정확히 일치한다. 시간이 갈수록 연애와 관련한 여성 지시어가 유행된 것과 발맞추어 기술과학 분야도 미용 관련 책들이 유행했기 때문이다. 특히 가정의학 관련 책이 1930년대 말에 재등장했던 일은 '총후 부인' 담론 아래에서 문학과 기술과학 분야의 책이 얼마나 긴밀하게 연동하고 있었는지를 잘 보여주는 증거다.

---

29) 식민지 말기 '총후 부인' 담론에 대해서는 권명아, 『역사적 파시즘』, 책세상, 2005, 159-204면 참조.

4. 식민지 여성과 문학의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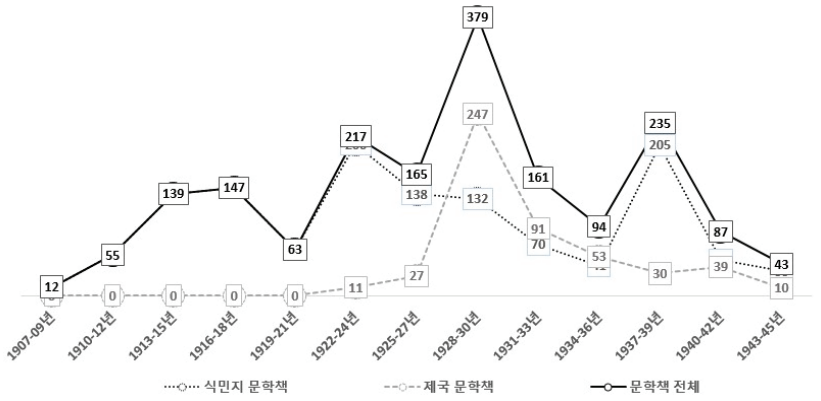
그렇다면 제국 본토와 다르게 식민지 조선의 여성 표제어 책에서 문학이 중심화한 까닭은 무엇일까? 먼저는 식민지 지식문화의 독특함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특히 1930년대에 들어서 식민지 책시장을 점점 더 강하게 잠식해 들어왔던 제국 본토의 출판기구의 공세, 총력전체제에 따른 출판검열의 압박 고조, 용지 부족 사태 심화, 3차 조선교육령에 따른 조선어 과목의 필수 교과목 지위 상실 등의 요인들이 맞물리면서 식민지에서 조선어책 시장의 규모는 갈수록 위축되었다. 이 과정에서 문학이 지식문화 전반을 대변할 정도로 조선어책의 문학중심주의가 현저해졌다. 앞의 표들에서 확인한 높은 문학 비중은 그러한 문학중심주의를 바탕으로 나타난 것이었다. 물론 이와 동시에 제국 본토 출판기구의 식민지 책시장 공략 방식도 주의해야 한다. 식민지의 주요 중앙지에 제국 본토 출판기구의 책 광고는 1920년대 들어서면서 등장했고, 1920년대 중반을 지나면 해당 신문의 책 광고란은 제국 본토 출판기구가 장악하게 되었다. 주의할 현상은 책 광고의 변화다. 1920년대에는 신문 지면 하단의 책 광고란 크기에 맞는 소형 책 광고가 거의 대부분이었다가 1930년대부터는 신문 지면의 절반이나 전면을 차지하는 대형 책 광고가 자주 등장했다. 이는 엔본 및 문고본 붐에 의해 불거진 재고 정리를 위한 것이었다. 제국 본토 출판기구가 대형 책 광고를 병행했기 때문에 소형 책 광고에서 특정 분야의 비중이 과도하게 높았던 현상이 시간이 지나도 해소되지 않고 지속되었던 것이다. 식민지와 제국 사이에서 여성 표제어 책의 문학 비중 격차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책 광고를 이원화한 제국 본토 출판기구의 판매전략을 고려해야 한다.[30]

다만 이런 사정은 제국보다 문학의 사회적 위상이 남달랐던 식민지의 지식문화에 관한 것이지 식민지 여성의 지식문화에 관한 것은 아니다. 그와 같은 식민지 지식문화의 일반적 사정을 고려한 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식민지 여성만의 특수한 사정을 또다시 고려해야 한다.[31] 이를테면, 식민지시기에

30) 유석환, 「식민지시기 책시장의 동향과 지식·문학의 관계 (3): 1930년대 후반기의 문학중심주의」, 『민족문학사연구』 79, 민족문학사학회·민족문학사연구소, 2022.

31) 식민지시기 문학과 여성독자의 관계에 대한 개괄적 설명은 천정환, 『근대의 책 읽기』, 푸른역사,

실시된 여성의 독서 취향 조사에서는 "첫재로 문학 방면의 서적을 보는 이가 절대다수"임을 거의 언제나 강조했다.[32] 왜 식민지 여성은 식민지 남성보다 문학을 더 선호했는가와 같은 물음을 던지며 여성 표제어 책의 문학 중심성 혹은 식민지 여성과 문학의 관계를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프 3] 문학책의 시기별 규모

[그래프 3]은 신문의 책 광고에 기초하여 식민지 책시장에서 유통된 문학책의 시기별 규모를 표현한 것이다. 서로 반비례 관계를 보였던 "식민지 문학책"(1,289종)과 "제국 문학책"(508종)의 규모를 합한 "문학책 전체"(1,797종)의 시기별 규모의 추세는 흥미롭게도 여성 표제어 책의 시기별 규모의 추세([그래프 1])와 유사했다. 그래프의 값을 비중으로 환산하면, 1921-1930년의 시기가 전체에서 44.9%로 가장 높았고, 그다음이 30.9%를 기록한 1931-1940년, 그다음이 19.8%의 1911-1920년이었다. 이는 1920년대에 규모가 급증했다가 1930년대에는 1910년대보다 약 1.3배의 규모를 유지하며 하강세를 보였던 여성 표제어 책 규모의 추세와 비슷했다. 요컨대, 여성 표제어 책과 문학책의 시기별 규모의 유사성 또한 여성과 문학의 관계가 남다르다는 것을 시사한다.

2003, 335-357면 참조.

32) 「조선 녀성의 독서열은 엇던가」, 『朝鮮日報』, 1933.1.23. 4면.

여성 표제어 책의 문학 중심성 혹은 식민지 여성과 문학의 긴밀한 관계에 대한 해명은 당연히 단순하지 않겠지만, 적어도 두 가지 점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다. 그중 한 가지는 내재적 요인으로서 문학의 접근성이다. 근대 계몽주의자들이 일찍부터 주목했듯이 문학, 특히 소설의 언어는 상당히 민중적이었다. 이를테면, 염상섭은 예술의 대중화를 이루어낸 근대가 왜 소설의 시대인지를 환기하며 자신이 지향하는 소설 언어의 수준을 다음과 같이 말한 적이 있었다.

> "나는 소설을 쓰면서 매양 누구에게 읽히려고 쓰느냐는 질문을 자기에게 발하는 때가 많다. 자기 딴은 다소 고급이라 할 만한 표준으로 쓸 때에는 소위 문단인끼리만 읽으려고 쓰는 것인가 하고 스스로 묻는다. 또 그보다 좀 낮춰서 소위 신문소설, 통속소설을 쓸 때에는 독자의 계급적 성질과 교양의 최고·최저점과 평균점이라는 것을 고려치 않을 수 없다. (…) 내가 소설을 쓰는 표준을 동호자(同好者)에게 두거나 중학생 정도를 그 평균점으로 한다는 말이 무리치 않음을 알 것이다. 문예는 결코 유한계급의 완롱물이 아니로되 조선에서는 유한계급에게도 용납되지 못한 처지인 고로 새로운 것에 대하여 민감을 가진 청소년, 학생이 아니면 유한계급 중에서도 사회적으로 책임이 없는 유복한 부녀자에 한하여 그 독자를 구함에 그치지 말 것이라는 말이다."[33]

고학력이나 특별한 기술을 요구하지 않는 소설 언어의 특질은 정도의 차이는 있었겠지만 시나 희곡 같은 다른 문학 장르에도 통용되는 것이었다. 문학의 표준어는 여성의 접근을 원칙적으로 차단했던 한문이 아니라 수백 년 동안 아예 여성의 문자로 규정되었던 한글이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문학은 근대세계와 근대인의 삶을 어느 정도의 기초교육을 받은 자에게 일깨워주고, 내면화시킬 수 있는 최적의 수단이었다. 남성에 비해 교육의 기회가 턱없이 부족했던 여성에게는 특히 더 그러했다. "밤낮 할 것 업시 변해가는 세계의 활무대(活舞臺)에서 일어나는 일을 그때의 말, 그 찰나(刹那)의 술어(術語) 혹은

33) 염상섭, 「조선과 문예, 문예와 민중」·「소설과 민중: 「조선과 문예, 문예와 민중」 속론(續論)」, 한기형·이혜령 편, 『염상섭 문장 전집』 1, 소명출판, 2013, 697-698면과 709면(말줄임표는 인용자의 것). 인용문에서 말줄임표 앞의 문장은 「조선과 문예, 문예와 민중」의 것이고, 말줄임표 뒤의 문장은 「소설과 민중: 「조선과 문예, 문예와 민중」 속론」의 것이다.

유행하는 말로 보도하는 신문·잡지" 기사의 특성 때문에 여학생이 "소설 중독(中毒), 문학 중독이 생기는 것도 적지 아니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로 나타난 일에 대해서는 더 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34] 김동인이 「김연실전」에서 신여성으로서 김연실의 각성 계기를 괴테의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이나 워츠 던턴의 『에일윈』과 같은 문학책으로 설정한 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다음으로는 외재적 요인으로서 여성의 사회활동에 관한 것이다. 함대훈은 식민지 조선의 여성사를 되돌아보면서 "물론 그 이전에 신여성이 업든 것은 안이지만 긔미년 이후 향학렬이 불타는 조선의 남녀학생이 급작히 발전된 때문에 신교육을 바든 녀성이 만히 나오게 됨에 따러 이 신녀성이란 말이 만히 류행"했고, "이에 따라 신녀성과 구녀성의 교양적 차별이 생기게 되는 동시 그 의복, 화장, 체격까지도 완연한 구별이 생기게 되엿다고 할 수 잇"었다고 지적했다. 이는 신여성 연구자들의 견해와 정확히 일치하는 것이다. 아울러 "여성도 남성과 가치 사회에 나아가 활동할 자유와 권리가 생기게 되"어 "혹은 전문 이상을 졸업하고 중학교 교원이 되고 신문긔자가 되고 여사무원 되고 (…) 더구나 이러한 직업전선에뿐만 안이라 그때 사회사조의 파랑 속에 배를 띄우고 정치적 사상적 운동까지 전개되게 되엇스니 경성에 여성동우회(女性同友會)가 생기고 그 후 동경에 삼월회(三月會)가 생기고 그 뒤에 근우회(槿友會)가 창립되여 여성해방투쟁의 봉화를 들게 되엿"다는 함대훈의 말도 분명한 사실이었다.[35]

근대 여성사의 분기점과 같았던 그 "긔미년 이후"부터 여성과 독서를 키워드로 한 기사들도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했는데,[36] 그 기사들은 두 가지

34) 丁炳基, 「여학생과 신문잡지」, 『신여성』, 1924.12. 14면.

35) 咸大勳, 「내가 본 조선 녀성 (2)」, 『朝鮮日報』, 1935.3.1. 3면(말줄임표는 저자의 것).

36) 다음과 같은 기사들이다. 「婦人讀書의 必要」, 『每日申報』, 1924.3.16. 3면; 「朝鮮婦人과 讀書」, 『東亞日報』, 1924.11.24. 3면; 完山人, 「가뎡 여자의 독서」, 『朝鮮日報』, 1925.9.7. 3면; 松岳山人, 「家庭婦人과 讀書 각 방면으로 필요」, 『每日申報』, 1926.12.19. 6면; 「時評: 女子의 人格-婦人과 讀書」, 『東亞日報』, 1927.5.10. 3면; R生, 「녀자와 독서」(전2회), 『동아일보』, 1928.4.11.-4.12. 3면; 「漫評: 朝鮮女子도 讀書하는가」, 『東亞日報』, 1929.1.30. 3면; 「조선녀성의 독서열은 엇던가」, 『朝鮮日報』, 1933.1.23. 4면; 「부인과 독서」, 『東亞日報』, 1933.9.19. 조간 6면; 「무식은 무식을 낫슴니다 어머니여 책을 읽자」, 『朝鮮日報』, 1933.10.8. 석간 5면; 許永淳, 「女性時論: 主婦와 讀書」, 『東亞日報』, 1935.7.10. 석간 4면; 宋玉璇, 「女性時論: 女子教育書의 必要」, 『東亞日報』, 1935.7.11. 조간 5면;

사항을 늘 강조했다. 하나는 학교를 졸업한 여성의 저조한 독서열이었고, 다른 하나는 인격 함양이었다. 말하자면, "여자교육이란 '시집갈 글'이라는 웃지 못할 '유행어(流行語)'"가 나돌 정도로 "보통학교나 중학을 마친 그것을 더 이용하거나 활용하지 안코 편지 쓰는 정도로 만족하는 부인"이 한둘이 아니라는 것이었다.[37] "재래 부인은 그 사회제도에 의하야 독서할 줄을 몰음에 대하야 시속 부인은 학교를 마쳣다는 것으로 한 큰일이나 한 것 같이 생각하야 독서하지 않는 경향(傾向)"이 현저하다는 것은 남성만의 판단이 아니었다.[38] 여성도 똑같은 판단을 내렸다. "한번 결혼하야 가정에 드러앉으면 서적과는 아주 멀어지고 만다. (…) 오늘날까지의 형편으로는 교육받지 안흔 구식 여성이나 소위 교육을 받엇다는 신식 여성이나 한번 가정생활을 시작한 뒤에는 별로 차이 없는 것이 속일 수 없는 사실인 것 같다."[39]

이렇게 여성의 낮은 독서열을 높이기 위해 한결같이 강조되었던 사항은 "人格完成에 目標"를 위한 독서 내지 "사람다운 생활"을 위한 "정신의 양식"으로서의 독서였다.[40] 이는 식민지시기가 끝날 때까지 일관되었다. "정신의 화장, 정신의 무장에도 여러분은 조화를 일치 마십시오."[41] 아울러 "人格을 向上시키어 줄 만한 修養書類"로서 주로 권장되었던 책은 "哲學, 宗教, 倫理, 其他 精神科學에 關한 여러 가지 圖書 또는 文學에 關係 잇는 健全한 作品"이었다.[42]

인격 수양을 목표로 한 독서의 전통은 대단히 오래된 것이었다. 문제는 그런 독서 방식이 유독 여성에게만 꼬리표처럼 따라다녔다는 사실이다. 그도 그럴 것이 "第二國民을 養成하ᄂᆞᆫ 大使命을 負함에 足할 女子가 되려면 修養이 必要"했기 때문이다.[43] 그러나 문제의 원인은 그게 다가 아니었다. 식민지시기에 교육

林孝貞, 「女性時論: 知識·讀書·修養」, 『東亞日報』, 1935.7.12. 조간 5면; 八判洞人, 「時感: 부인과 독서생활」, 『東亞日報』, 1936.2.27. 조간 5면; 李泰俊, 「현대적 교양의 특증은 독서로만 되는 것」, 『每日申報』, 1941.1.22. 4면 등.

37) 八判洞人, 「時感: 부인과 독서생활」, 『東亞日報』, 1936.2.27. 조간 5면.

38) 「부인과 독서」, 『東亞日報』, 1933.9.19. 조간 6면.

39) 許永淳, 「女性時論: 主婦와 讀書」, 『東亞日報』, 1935.7.10. 석간 4면(말줄임표는 인용자의 것).

40) 宋玉璇, 「女性時論: 女子教育書의 必要」, 『東亞日報』, 1935.7.11. 조간 5면; 完山人, 「가뎡 여자의 독서」, 『朝鮮日報』, 1925.9.7. 3면.

41) 李泰俊, 「현대적 교양의 특증은 독서로만 되는 것」, 『每日申報』, 1941.1.22. 4면.

42) 林孝貞, 「女性時論: 知識·讀書·修養」, 『東亞日報』, 1935.7.12. 조간 5면.

받은 여성의 사회활동이 매우 제한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 주제를 검토한 연구자들은 식민지시기에 중등교육을 받은 여성의 진학과 취업의 문이 갈수록 좁아졌다는 데 동의한다. "여성 경제활동의 침체는 같은 시기의 남성, 그리고 식민지에 거주하였던 일본인 여성은 말할 것도 없고 동일한 식민지 상황의 대만과 비교해도 특수한 양상이었다."[44] 여기에는 남녀의 차별뿐만 아니라 제국의 여성과 식민지의 여성 사이에서 비롯된 차별도 한몫했다. 말하자면, 가장 다양한 직종을 제공했던 경성에서 "가사사용인과 예창기 및 급사 호객꾼을 제외하면 '근대적' 직업에 종사하는 조선인 여성은 2,744명이고 일본인 여성은 5,334명이었다. 이 여성들 중 일본인은 전문직과 사무직 및 상층 서비스 직종을 점유한 데 반해 조선인 여성은 소수의 전문직과 하급 서비스 직종을 점유하고 있었던 것이다."[45]

각종 직업과 취미의 매뉴얼을 제공했던 실용서는 책의 근대화를 이끌었던 주역 중 하나였다.[46] "일반뎍 교육 외에 직업뎍 교육을 실제 생활에 경험 만흔 부인이 만타함"을 동경하며 미국의 여자대학을 모범으로 제시했던 일도 있었다.[47]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에게 직업과 관련한 실용서를 권장한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다. "自稱 高等룸펜"을 토로할 수밖에 없을 만큼 "女性의 活動機關이 적은 까닭"이었다.[48] "조선 녀성으로 외국 가튼 데 가서 다른 사람들의 생활양식과 그 사회의 풍긔에 저즐 때는 그들한테 지지 안 흘 만큼 독서를 하든 이도 고국에 돌아오면 그대로 독서와는 인연이 다시 멀어지고 마는 것"도 그와 무관하지 않았다.[49] 문학의 핵심 독자층이 여성이라고 누구나 말했지만, 1세대 여성작가들은 여성이 작가가 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온몸으로 보여줬다. 이런 면에서 여성의 사회활동이 활발해졌다는 함대훈의 말은 반쪽만 맞다. 그런 여성은 소수 중의 소수였기 때문이다.

---

43) 「婦人讀書의 必要」, 『每日申報』, 1924.3.16. 3면.
44) 김경일, 『여성의 근대, 근대의 여성』, 푸른역사, 2004, 339-340면.
45) 김수진, 『신여성, 근대의 과잉』, 소명출판, 2009, 89면.
46) 천정환, 『근대의 책 읽기』, 푸른역사, 2003, 181-202면.
47) 호동생, 「모범할 만한 아메리카의 부인과 그의 가뎡」, 『東亞日報』, 1926.1.19. 3면.
48) 金鍾順, 「女性時論: 女性과 職業」, 『東亞日報』, 1935.7.27. 조간 5면.
49) 「漫評: 朝鮮女子도 讀書하는가」, 『東亞日報』, 1929.1.30. 3면.

요컨대, 문학은 여성에게 단순히 취향의 대상만은 아니었다. 전근대의 여성이 소설을 필사함으로써 문자문화의 영역에 자신의 입지를 마련했듯이 식민지의 여성은 문학을 통해 인간다움과 근대인의 삶을 내면화했다. 그리 난해하지 않은 언어 덕분에 문학은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학력이 부족한 여성에게 그에 필요한 정보와 지식의 수원이 될 수 있었다. 그러나 여기에는 여성의 사회활동을 상당히 제약한 구조적 압력도 작용했다.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문학책을 그만 읽고, 실용적 지식과 정보를 익히라는 사회적 요구가 분명 빗발쳤을 것이다. 이런 사정 속에서 여성 표제어 책에서 문학책이 유난히 많았던 현상이 비롯되었다.

5. 맺음말: 식민지의 여성과 책시장의 젠더 역학, 그리고 문학

그동안 근대 여성의 주체성은 자료의 한계 때문에 제한된 범위 내에서 검토되어 왔다. 유의미한 결론을 도출해낼 수 있는 특정한 여성, 특정한 여성잡지 등이 주된 분석대상이었다. 이 글에서는 기존 연구의 그런 문제틀에서 벗어나 근대 여성의 주체성에 좀 더 새롭게 접근하고자 했다. 역사상 실존했지만, 직접적인 기록물의 부재·결핍 때문에 접근하기가 어려운 여성, 말하자면 소수의 남다른 여성이 아니라 일상적인 집합적 주체로서의 여성을 주목하고 싶었다.

주지하다시피 주체와 제도의 관계는 일방향적인 것이 아니라 쌍방향적이다. 이 글의 분석대상이었던 책시장을 예로 들어 말하면, 여성을 새롭게 인식함으로써 책시장에 일정한 변화가 생겼다는 것은 바꿔 생각하면, 책시장이 여성의 주체성에 일정한 영향력을 받았다는 것을 뜻한다. 출판제도를 남성이 독차지해도 말이다. 이윤을 추구하는 출판업의 생리상 남성의 욕망이 무작정 관철될 수만은 없기 때문이다. 식민지시기에 여성 인식에 따른 책시장의 변화상은 여성의 주체성이 일방적으로 억압된 것도, 아니면 그와 정반대로 남성과의 투쟁에서 승리한 여성의 전리품도 아니었다. 억압과 투쟁뿐만 아니라 협력과 조율, 교섭, 상호인정의 과정도 그 변화상에 전제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다만 문제는 일상적인 집합적 주체로서의 여성은 남성과의 다양한 관계에 대한 엄밀한 분석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변화의 결과만을 가지고 주체성의 정도만을 짐작할 수밖에 없는 것이 문제의식의 한계인 셈이다. 이 글 서두에서 여성의 주체성을 일단은 유보하자고 말했던 까닭도 그 때문이었다.

이 글에서는 집합적 여성의 주체성을 여성 표제어 책을 통해 헤아려봤다. 책시장에서 여성 표제어 책의 유통은 1920년대에 정점에 달했다. 여학생으로 대변되는 여성의 본격적인 사회 진출에 따라 여성을 둘러싼 경쟁이 본격적으로 전개된 결과였다. 1920년대 동안 여성 표제어에서는 집안의 여성보다는 집 밖의 여성을, 기혼 여성보다는 미혼 여성을 지시하는 말이 우세를 점했다. 이는 전통적 여성과 근대적 여성을 가르는 지표로 작용했다. 하지만 총력전 체제가 발동하면서 여성의 주된 공간은 다시 집안이 되었다. 기의를 빼고 기표의 변화만 본다면, 여성 표제어는 '기혼 여성-집안 → 미혼 여성-집 밖 → 기혼 여성-집안'으로 회귀적 양상을 보였다.

여기서 주목할 지점은 집안의 삶을 운명으로 받아들였던 전통적 여성처럼 근대적 여성도 결국에는 집안에 상주할 것을 암시하는, 주체와 공간의 고착 관계다. 실제로 식민지시기에 교육받은 여성이 사회활동을 계속 이어나간 경우는 드물었다. '미혼 여성-집 밖'을 지시하는 표제어가 상징하듯이 대부분의 식민지 여성에게 교육은 연애와 결혼의 수단이었다. 이는 여성을 집안에만 속박시키는 가부장제의 폐해 때문만은 아니었다. 어쩌면 그보다는 제국의 압박에 대응하기 위한 식민지 남녀의 생존 방식에서 그 이유를 찾아야 할지도 모르겠다. 남녀 할 것 없이 사회 전방위적으로 제국인을 우대, 식민지인을 홀대했던 차별적·폭력적 상황 속에서 집 안팎을 남성과 여성이 분할해 맡는 것이 최적일 수 있었기 때문이다. 마치 자연 상태에서 남녀가 그런 방식으로 생존한 것처럼 말이다.

교육받은 근대적 여성의 사회활동에 상당한 제약이 가해짐으로써 나타난 현상 중 하나는 여성 표제어 책에서 문학의 중심화였다. 일부의 모더니즘 문학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문학책은 고도의 리터러시를 필요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학책은 식민지 여성의 취향의 대상이자 근대를 지속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참고서로 기능했다. 물론 식민지 여성과 문학의 친밀성에는 여성 특유의 정서나 취향이 작용했을 수 있다. 그러나 식민지 사회의 구조적 압력이 작용하지 않았다면, 문학의 중심화 현상은 그렇게까지 심하게 나타나지 않았을 것이다. 이는 달리 생각하면, 책시장에서 문학책이 중심화될수록 책시장에 대한 여성의 영향력도 그만큼 커져 갔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 글을 마무리하며 마지막으로 생각해보고 싶은 또 하나의 사항은 식민지시기에 문학의 사회적 역할과 기능이다. 문학은 언론의 자유가 제약받을 때 政論의 대안으로서 주목을 받곤 한다. "이 政治 알에서 自由로 同胞에게 通情할 수 없는 心懷의 一部分을 말하는 方便으로 小說의 붓"을 들었다는 이광수의 고백처럼 식민지시기에 문학은 실제로 그런 사명을 감당했다.[50] 이 글에서는 표현의 자유가 상당히 제한되었던 식민지인에게 문학이 외설물의 대안으로서 주목받았다는 점을 환기했다. 흔히 정론과 외설물은 지식인과 대중의 문화를 각각 상징하는데, 여성은 정론과 외설물 모두에서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된 존재였다. 이런 점에서 문학은 여성의 소외를 해소하는 사회적 장치였다. 나아가 성별·학력·계층 등을 초월하여 사회의 다양한 주체들의 필요를 일정 부분 충족시켜준 사회적 장치이기도 했다. 식민지시기에 문학에 부여된 과도한 가치에는 그런 속사정이 자리 잡고 있었다.

50) 李光洙, 「余의 作家的 態度」, 『東光』 20, 1931.4. 81면.

▮ 참고문헌

『東亞日報』
『大韓每日申報』
『萬歲報』
『每日申報』
『新女性』
『朝鮮日報』
『新刊圖書目錄』, 博文書館, 1927.
『新文館發賣書籍總目錄』, 1914.
『新文社代理部發售書籍目錄』. 발행일 불명.

권명아, 『역사적 파시즘』, 책세상, 2005.
권보드래, 『연애의 시대』, 현실문화연구, 2003.
김경남, 「근대계몽기 가정학 역술(飜譯・編述) 자료를 통해 본 지식 수용 양식」, 『인문과학연구』 46, 강원대 인문과학연구소, 2015.
김경연, 『근대 여성문학의 탄생과 미디어의 교통』, 소명출판, 2017.
김경일, 『여성의 근대, 근대의 여성』, 푸른역사, 2004.
_____, 『신여성, 개념과 역사』, 푸른역사, 2016.
김성수, 『한국 근대 서간 문화사 연구』, 성균관대 출판부, 2014.
김수진, 『신여성, 근대의 과잉』, 소명출판, 2009.
박선미, 『근대 여성, 제국을 거쳐 조선으로 회유하다』, 창비, 2007.
박철희, 「식민지기 한국 중등교육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2002.
서지영, 『경성의 모던걸』, 여성문화이론연구소, 2013.
오성철, 『식민지 초등교육의 형성』, 교육과학사, 2000.
유석환, 「식민지시기 책시장의 동향과 지식・문학의 관계 (3): 1930년대 후반기의 문학중심주의」, 『민족문학사연구』 79, 민족문학사학회・민족문학사연구소, 2022.
안예리, 「20세기 전반기 가정학 교과서의 번역과 어휘」, 『한국사전학』 31, 한국사전학회, 2018.
이혜령, 「식민지 섹슈얼리티와 검열」, 정근식 외 편, 『검열의 제국: 문화의 통제와 재생산』, 푸른역사, 2016.
임상석, 「근대계몽기 가정학의 번역과 수용」,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27,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13.
이지연・전상숙, 「식민지시기 근대 과학적 지식으로서 가정학의 형성」, 『이화사학연구』 52, 이화사학연구소, 2016.
장 신, 「한국강점 전후 일제의 출판통제와 '51종 20만권 분서(焚書)사건'의 진상」, 『역사와 현실』 80, 한국역사연구회, 2011.
조혜란, 「조선시대 한글과 여성 교양」, 『달밤의 약속, 완월회맹연 읽기』, 책과함께, 2019.
천정환, 『근대의 책 읽기』, 푸른역사, 2003.
한국고전여성문학회 편, 『신작로에 선 조선 여성』, 소명출판, 2020.
한기형・이혜령 편, 『염상섭 문장 전집』 1, 소명출판, 2013.

홍인숙, 『근대계몽기 여성 담론』, 혜안, 2009.
_____, 『한국 근대 척독서 연구』, 태학사, 2020.

木村涼子, 이은주 역, 『주부의 탄생: 일본여성들의 근대와 미디어』, 소명출판, 2013.
陳澔, 정병섭 역, 『譯註 禮記集說大全』, 학고방, 2013.
Christiane Immann, 엄미정 역, 『판도라의 도서관: 여성과 책의 문화사』, 예경, 2011.
Ernst von Hesse-Wartegg, 정현규 역, 『조선, 1894년 여름』, 책과함께, 2012.
Franco Moretti, 김용규 역, 『멀리서 읽기』, 현암사, 2021.
Isabella Bird Bishop, 신복룡 역주, 『조선과 그 이웃 나라들』, 집문당, 2000.
Stefan Bollmann, 유영미 역, 『여자와 책』, ㈜알에이치코리아, 2015.

【Abstract】

Women and Books: The Gender Dynamics of the Colonial Book Market Through the Books with Female Title Words

Yu, Seok-Hwan*

This article examines how the social perception of women structured the colonial book market. For this purpose, in this paper, books with female directives attached to the titles of books distributed in the book market were set as the sample group. For this sample group, the relationship between women in the colony, the book market, and literature was investigated. The circulation of books with female title words in the book market peaked in the 1920s. In female title words, words that refer to women outside the home rather than women in the household and to single women rather than married women were dominant. This acted as an indicator to differentiate between traditional women and modern women. In addition, literature was not merely an object of taste for women. Just as women in the pre-modern era established themselves in the realm of literary culture by copying novels, women in the colonies internalized humanity and the lives of modern people through literature. However, the close relationship between women and literature was also affected by the structural pressure of the colonies, which severely restricted women's social activities. This article examining these points will provide an opportunity to take a new look at the gender aspect of modern knowledge culture.

Keywords: Colonial Book Market, Books with Female Title Words, Gender Dynamics, Colonial Knowledge Culture, Modern Woman Figure.

접수일: 2022.09.29. || 심사일: 2022.10.18. || 게재확정일: 2022.11.25.

* Researcher, Daedong Inst. for Korean Studies, Sungkyunkwan Univ.